

# 전직 대기업 CEO, 협력업체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자문나서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기업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 모범사례 중 지난 3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혁신전략 구축을 위한 '경영닥터제' 발대식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_ 김한준(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연구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케이스로 자리매김

경영닥터제란 협력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자문제도로써 '대기업-협력업체-전경련 경영자문단' 간 협력체제를 구축, 협력업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컨설팅 제도다. 물론 수혜기업들은 비용부담이 전혀 없으며 경영혁신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협력업체 CEO 및 임직원의 확고한 신념과 상생협력의 성과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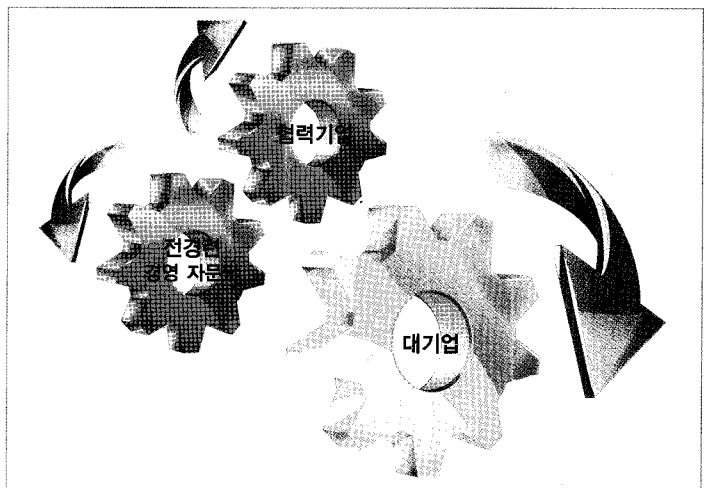
2007년 삼성전기와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이르기 까지 경영닥터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13개 대기업과 28개 협력업체였다. 본 프로그램이 상생협력의 모델 케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참여 대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협력업체 대표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 때문이다.

2007년 참여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A사의 경우 경영자문을 받아 경영전략 업무를 조정하고 5대 신규제품 확대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2억 원 적자에서 3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B사는 매출이 전년대비 25% 향상됐으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됐다. C사는 인사제도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외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경영닥터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A는 성과중심의 경영 프

## 〈역대 경영닥터제 참여기업 현황〉

'07년 대기업 1개사, 협력업체 3개사 참여  
'08년 대기업 6개사, 협력업체 15개사 참여



| 구분           | 참여 대기업 및 협력업체  |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                              |
|--------------|--|--|
| 시범사업 (2007년) | 삼성전기 및 협력업체 3개사  | 전경련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단 자문위원                       |
| 1기(2008년)    | 삼성전기, STX조선, 남동발전 및 협력업체 7개사                           | 사무국<br>임찬석 팀장<br>김한준 연구원<br>(02-6336-0612) |
| 2기(2008년)    | 포스코, 롯데쇼핑, 신세계 및 협력업체 8개사                              |  |
| 3기(2009년)    |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G전자, KT, 포스코, 포스코 건설 및 협력업체 10개사 |  |



로세스를 도입하고 해외진출에 나서라는 자문을 받고 사업구조 개편과 인도사무소 신설 등 경영혁신에 나섰으며, B사는 경영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영업과정에서 현금흐름이 지체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 현금 회수 기간을 18일 줄일 수 있었다.

협력센터의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경영자문 시범사업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닥터제는 대중소기업 신뢰 구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영자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문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 무료 경영자문을 제공해 자생적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경영닥터제는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외부 컨설팅과는 달리 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자문 프로세스(A/S)가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경영자문 시 기업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브리핑, 워크숍, 세미나 등이 병행 추진되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역량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영닥터제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서플라이어로, 모기업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